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4 부 . 사 회 에 공 헌 하 는 법 률 전 문 가 공 동 체

지평의 구성원들은 본인의 전문성과 관심에 따라 공익활동을 담당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평의 구성원이 수행한 공익활동 시간을 합산하면 총 8,930.85시간에 달하며, 이를 환산하면 6,351,526,700원에 해당합니다. 공익활동을 통해 이룬 제도개선과 소수자 권익증진 성과의 가치는 위의 단순 환산 가치를 크게 넘어섭니다. 지평은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과 기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현장을 경험하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지평의 공익활동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공익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평의 총 공익활동 시간은 8,930.85시간으로 2019년 대비 622.4시간이 늘었습니다. 변호사 1인당 공익활동 시간은 40.59시간,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의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47.50시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익활동 대상자인 220명의 국내변호사 중 85.45%인 188명의 변호사가 공익활동에 참여하였고, 이 중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의 비율은 45%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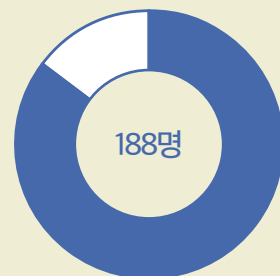
총 공익활동 시간
8,930.85시간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40.59시간 (8,930.85시간:2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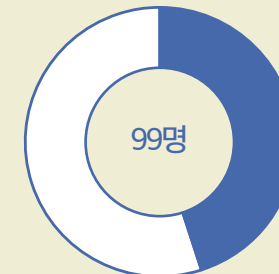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85.45 % (188명/220명¹⁾)



1) 공익활동 대상인 한국변호사 + 서울사무소 외국변호사 숫자

3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45 % (99명/220명)



사회봉사활동 총 시간
3,691.84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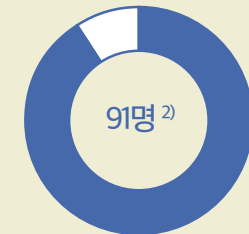


로펌 구성원 1인당 사회봉사활동 시간
7.89 시간 (46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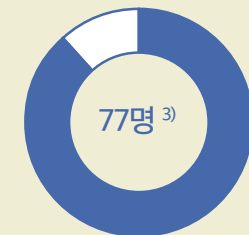


소속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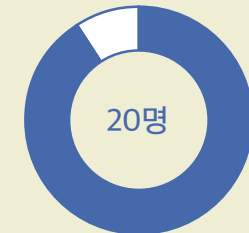
소속변호사
81.98 %
(91명/111명)



구성원변호사
88.51 %
(77명/87명)



외국변호사(서울)
90.91 %
(20명/22명)



※ 본 지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로펌 공익활동 평가지표'에 따라 산출한 것입니다.

※ 지평 소속 국내변호사(지방사무소·해외사무소 포함)와 외국변호사(서울사무소) 220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공익전업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소속 변호사)의 활동 시간은 제외하였습니다.

※ 비법률분야 공익활동은 지평의 전체 구성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공익활동 대상인 한국변호사 중 소속변호사의 숫자

3) 공익활동 대상인 한국변호사 중 구성원변호사의 숫자

공익활동

5대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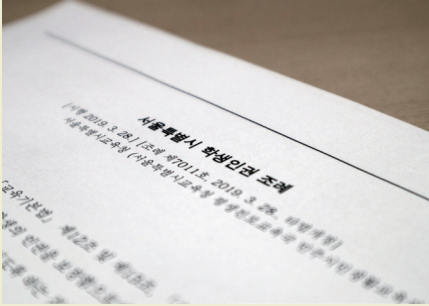
군 영창제도 폐지 및 위헌 결정

군대에서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옛 군인사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올해 초 영창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된 것에서 한 발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수년에 걸친 문제제기 끝에 영창제도는 124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구조대상과 공익상 수상

지평은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구조대상'과 '공익상(송무)'을 수상하였습니다. 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은 공로와 공항난민 가족을 대리하여 난민심사의 기회를 얻은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관련 결정 디딤돌 판결 선정

헌법재판소는 '차별과 혐오의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가 함께 대리하여 합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 사건은 제36회 한국여성대회에서 디딤돌상을 받았습니다.



환경소위원회 신설

지평이 공익위원회 산하에 환경소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 영역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환경 분야는 지평에서 2020년에 처음 시도하는 공익활동 영역입니다. 점차 환경 분야에서 할 일이 많아지는 만큼, 지평 환경소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됩니다.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지평과 두루가 오랫동안 지속해온 입법운동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아동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주체입니다. 이번 개정이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2

법률 공익활동



장애 인권 활동

지평의 장애인권소위원회는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소송과 법률자문 및 법·제도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소송 수행
-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 항소심 수행
- 장애인 작업장 내 인권침해 등 형사사건 지원
- 「국가공무원법」 피성년후견인 당연 퇴직 규정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수행
- 장애인 차별상담사를 위한 법률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실시

아동·청소년 인권 활동

지평의 아동청소년교육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들 앞에 닥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함께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소송,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운동, 국제연대활동, 법률교육, 자문과 상담을 수행합니다.

주요 활동

- 수용자자녀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 운동, 법률매뉴얼 제작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관련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 입법운동
- 애란원 법률교육, 법률자문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법률교육 및 법률자문
- 찾아가는 법률교육

사회적경제·기업공익 활동

지평의 기업공익법연구회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입법지원, 제도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S사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 법률지원
- S공사 인 권경영지표 개발 연구 및 인권영향평가 용역
- 루트임팩트, 크레비스파트너스, SOPOONG 등과 협력하여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대상 법률자문
- 1번호사1 소셜벤처 매칭사업
- 헤이그라운드 입주사 대상 법률 및 인권 교육
- 소셜벤처-변호사 매칭 사업 기획 및 진행

국제 인권·이주민 인권 활동

지평의 국제인권소위원회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및 해외 NGO,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평 해외사무소를 통해 법률가의 해외봉사활동 및 공익법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난민인정신청 조력,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 대리
- 난민인정신청 과정에서의 통·번역 피해자 중 난민심사 재신청자 조력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신청 등 외국인 구금 해제 조력
- 공항 구금 난민신청자 가족 난민심사불회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 난민인권센터 지원, 난민 네트워크 참여 및 난민 혐오 대응 실무그룹 참여

환경 공익 활동

지평의 환경소위원회는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인권을 위협하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송과 자문 및 연구 등 법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 사내의 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 전문가를 초대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환경일보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협력 활동
-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환경관련 사회적기업과 1번호사1 소셜벤처 매칭사업 진행

기타 공익 활동

지평 공익위원회는 선거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통일, 여성 인권, 군 인권 등 다양한 공익법 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선거의 자유 / 선거기간 중 집회·모임 관련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 통일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자문
- 여성 인권 / 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에 의한 살인 사건 유족 대리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 군 인권 / 군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 기타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 기타 /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변호 및 위헌소송

주요

공익활동

소개

공익변호사 생태계 조성 사업

사업 개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전업 공익변호사는 2020년 기준 약 12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변호사 경력이 짧고 네트워크와 정보가 부족해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평의 후원으로 실시된 2019년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어려움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익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새내기 공익변호사의 업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단법인 두루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공동으로 제1회 새내기 공익변호사 실무교육 프로그램 ‘슬기로운 공변생활’을 기획·진행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의 업무 경험을 토대로 공익변호사로서 개인의 성장과 단체의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에 2020년 6월 15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7주간 8개 단체에서 일하는 9명의 1~3년차 변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두루에서는 예비법조인이 공익변호사 단체를 경험하고 공익인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매년 하계, 동계 실무수습을 진행하

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동계 11명, 하계 10명의 실무수습생이 두루에서 공통과제, 영역별 업무소개, 영역별 과제 및 강평, 두루 변호사 외부 일정 동행 등의 다양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3주간 진행된 동계실무수습에서는 두루와 함께 활동하는 단체에 실무수습생들이 파견되어 NGO 업무를 경험하고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업 연혁/일정

•2015년부터 매년 두루에서 하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진행 •2018년 9월 ~ 2019년 7월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연구 진행 •2019년 8월 22일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 주관 •2019년 9월 4일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 발행 •2020년 6월 15일 ~ 2020년 7월 31일 ‘제1회 슬기로운 공변생활’ 진행 •2021년 예비 법조인을 위한 공익적 법조 진로 실태조사연구 예정

사업 결과/현황/성과 등

두루 실무수습 •총 11회 진행 •참여 누계 인원 : 113명
•지원자 누계 인원 : 767명 •공익변호사 배출 인원 : 5명
제1회 슬기로운 공변생활 •8개 단체에서 일하는 9명의 새내기 공익변호사 참여 •7주간 주3회, 168시간 진행(8개의 과제, 4개의 특강 프로그램)

수용자자녀 권리 옹호를 위한 입법운동



사업 개요

지평과 두루는 수용자자녀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법률바꾸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자녀’란 양육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아동을 말합니다. 수용자자녀는 갑작스러운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고 부모와 함께 살 수도, 만날 수도 없게 됩니다. 부모가 수용되었다는 이유로 따돌림, 편견과 낙인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용자자녀를 ‘잊혀진 피해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2015년부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등 현장단체와 함께 수용자자녀가 부모의 형집행과 관계없이 아동으로서 보유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지원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양육되는 유아의 권리보장 문제, 수용자자녀가 겪는 사회복지급여 지급, 형사피해사건, 소년보호사건, 친권과 후견권 문제 등에 관한 각종 상담과 자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와 연구, 대한민국의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위한 심의대응 및 모니터링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본격적으로 수용자자녀의 권리 옹호를 위한 입법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등

과 함께 수용자자녀 입법TF를 꾸렸습니다. 현장사례를 기초로 아동보호체계에서 수용자자녀가 직면하는 한계와 어려움을 정리해 입법의 필요성을 되짚고, 수용자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회기 안에 수용자자녀의 권리와 지원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업 연혁/일정

•2017년 수용자자녀 국제연대 컨퍼런스(INCCIP) 참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2019년 형집행법 개정(2017년 연구 토대로 수용자자녀 면접권 확대, 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자문) •2019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지정법인 선정, “수용자자녀 법률지원사업” 수행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대응 활동(수용자자녀 관련 최초의 권고)
•2020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자문협력)
•2020년 법무부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TF’ 위원 활동

사업 결과/현황/성과 등

2020년 12월 형집행법, 형사소송법, 치료감호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의원실 대표발의): 수용자자녀 정의, 체포와 구속 및 형의 집행 단계에서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계, 기본계획 및 협의체 구성, 교정시설 내 유아양육기간 연장 등

장애인권 상담가를 위한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사업 개요

“장애인차별 사례를 직접 상담하는 전국 장애인차별상담전화(1577-1330)의 전화는 실 틈 없이 올립니다. 전화를 받는 이들은 전국 장애인차별상담전화 네트워크에 속한 53개 상담소의 상담사들입니다. 이들은 전화로 또는 현장을 찾아가서 여러 차별사례들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합니다.”

전국적으로는 매달 평균 265건의 상담사례가 위 상담전화를 통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상담전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후원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상담가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열악한 여건에서 장애인 인권을 위해 뛰는 상담가들에게도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제도는 항상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평과 두루는 지역의 상담사들을 위한 법률교육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평과 두루는 올해 광역별로 장애인차별상담소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두루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인천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부산, 경남 등 7개의 지역의 장애인상담전화를 찾아가 상담에 필요한 법률(제도)관련 교육과 ‘장애인 인권 상담 매뉴얼’ 활용방법을 교육하고,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지역 사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조건에서 비대면 교육을 강화하고 법률(제도)지원을 위하여 매뉴얼 책자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의 후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결과/현황/성과 등

•교육 총 52명(지역 상담가 48명, 공익변호사 4명 대상) •매뉴얼 300부 배포•교육 동영상 11개 제작 •참여 변호사 13명

03

비법률 공익활동

사회 공헌 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지평과 두루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서대문구 연희동에 소재한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제빵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하에 10명 이하 모임 규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여 독거 어르신 및 탈북민, 노숙자에게 제공할 빵을 만들었습니다.

점자도서 원고 입력

지평과 두루는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점자도서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외부 봉사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점자도서 제작 봉사활동은 점자입력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참여율을 더 높일 수 있었고,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점자 도서 입력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무료급식 봉사활동

지평과 두루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저녁,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저녁식사 배식을 지원하고 설거지와 청소 등 마무리 정리를 돕고 있습니다.

점자도서 입력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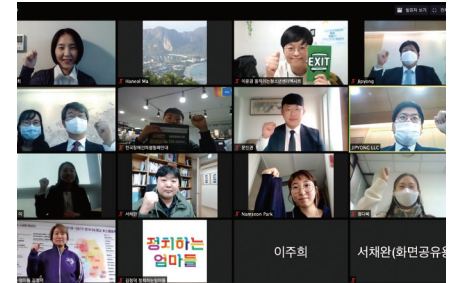
기부 활동

재정기부활동

지평과 두루는 2010년부터 매칭그랜트(구성원이 공익단체에 후원하는 금액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1대1로 매칭하여 후원하는 제도)를 통해 구성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칭그랜트 외 주요 기부]

• 이음장애인자립센터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이음여행' 지원 • 이화여자고등학교 취약계층 학생 장학금 지원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자립전환 프로그램' 지원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후원 음악회, 바자회 지원 • 이주민센터 '친구' 지원 • 탈북자자녀 대안학교 '겨레얼 학교' 지원 •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 지원 •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지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법캠프 지원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연' 캠프 지원 •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지원 • 난민인권센터 인건비 지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지원 • 장애인인권활동 공간마련을 위한 '벽돌기금' 지원 •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알기 쉬운 발달장애인법 해설서" 제작 사업 지원 •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지원사업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익인권적 접근과 고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와 공동선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총 9개 단체를 선정하여 공익인권활동과 공익소송,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04

환경정책

지평은 미래 세대에게 대물림해야 하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 그린오피스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도 다음으로 미뤄서도 안 되는 인류의 당면 과제로 로펌으로서의 이익창출 외에 공익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더하여 온실가스 절감을 통한 저탄소형 사업장 실현과 에너지 효율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경영 정책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위원회 신설

환경 문제가 기후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와 결합하면서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2020년 공익위원회 산하에 환경소위원회를 신설하고, 환경 영역의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지평의 사내 환경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위원회는 환경공익 소송, 자문 및 연구를 실시하고 환경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환경일보와의 업무협약

지평과 두루는 2020년 12월 1일 (주)환경일보와 환경 이슈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변화는 제조, 건설, 서비스 등 산업 전반의 생태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각종 이슈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의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평과 두루, 환경일보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제반 이슈에 관한 법·정책적 대응을 포함한 공동의 환경목표를 이루기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지평의 환경팀은 2020년 12월 16일 농업인, 가스검침원, 방송노동자, 건설노동자, 해수면 상승지역 거주민, 기후우울증 피해자 등 41명의 진정인을 대리하여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권과 건강권 등 인권을 침해할 주장하는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진정을 통해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미흡한 정부의 대응으로 인한 인권침해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구제 조치와 이행, 법령과 정책 개선을 권고하고 의견표명을 요청하였습니다.

Paperless Office

지평은 탄소배출 감소 및 자료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을 줄이고자 Paperless Office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이와 프린터기 사용으로 인한 탄소배출 뿐 아니라 쌓여있는 서류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미세먼지의 감소를 통해 업무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입니다. 2020년에는 종이 사용량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재택근무의 비중이 높아지고, 온라인 회의가 많아지면서 인쇄물로 자료를 배포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단위	2017년 소비량		2018년 소비량		2019년 소비량		2020년 소비량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복사용지 1BOX (2,500장)	1,290	4.69	1,340	4.49	1,345	4.13	1,210	2.59

에너지 소비 절감 프로젝트

지평은 점심시간 및 퇴근 후 일괄 소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환경실천소모임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으며,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불편함도 있었으나 2020년 현재 전사적 정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평의 서울사무소는 지속적인 인원 증가와 사무실 확장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전기 및 수도 사용량,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하였습니 다. 그러나 1인당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해 왔고, 내부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탄소발생 절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의 증가로 사무실 내 전기 사용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1인당 전 기 소비량은 1733.75kWh로 그 이전 3개년 평균인 2151.52kWh보다 417.77kWh 감소하였고, 이는 소나무 29.5그루를 심 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지평은 장기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배출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2017년 소비량		2018년 소비량		2019년 소비량		2020년 소비량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체	1인당
전기(kWh)	595,924	2,167.00	658,610	2,210.10	675,178	2,077.47	662,293	1,733.75
수도(t)	266	0.97	304	1.02	362	1.11	445	1.16
온실가스 배출량 (CO ₂ eq, kg)	366,191.4	1,331.61	408,037.8	1,369.25	435,019.5	1,338.52	308,974.9	808.83

(온실가스 발생량은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친환경 차량 정책

지평은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온실가스 감축이 전세계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친환경 차량 이용으로 사회적 책임의 한 부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9		2020	
	대수	비율	대수	비율
전체 법인차량	41	100%	52	100%
친환경 차량	9	21.9%	13	25%
- 하이브리드 차량	7	17%	11	21%
- 전기 차량	2	4.9%	2	4%

환경실천소모임의 구성

지평은 2015년 9월부터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자는 마음으로 사내 소모임인 환경실천소모임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월별 정기모임을 통하여 사내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환경실천 프로젝트들을 논의하며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실천소모임이 제안하는 다양한 캠페인들은 지평의 환경 정책 설정에도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절약 캠페인’을 중심 과제로 삼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종고책방’ 등과 같 이 모두가 참여하는 자원순환 운동을 기획하여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재사용 커피컵 홀더 만들기’ 및 사용 을 독려하고, ‘환경실천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구성원들의 환경보호 실천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을공원 숲 가꾸기

지평과 두루는 11월 14일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노을공원에서 ‘노을공원 숲 가꾸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봉사 활동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개인의 일상에 건강한 에너지를 충전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올해는 23명의 구성원과 가족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노을공원 경사면에 조성된 ‘동행숲’(동물이 행복한 숲)에 묘목을 심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평은 매해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 자연환경의 중요 성을 되새기며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